**2013 공자아카데미 하계 중국어문화캠프 소감문**

**국제경영학과 5254075 한다인**

**-스차하이**

베이징에 머무는 동안 야경을 보러 두세 번 갔을 정도로 야경이 아름다운 스차하이입니다. 관광객 뿐 아니라 데이트하러 온 커플, 운동하러 나온 아주머니, 낚시하러 오신 아저씨처럼 중국 현지인도 꽤 많았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면 고풍스러운 후통인 난루오꾸샹도 볼 수 있습니다. 엽서를 사실 경우 다른 관광지보다 스차하이, 난루오꾸샹쪽에 파는 엽서가 가격도 저렴하고 예뻤습니다.

강 주변에 카페와 바가 많고 스차하이 맛집으로 유명한 후통피자, 고육계도 은정교 주변에 있습니다. 베이징 카오야 또띠아와 양꼬치를 각각 10元에 파는 집이 있는데(고육계 주변에 있습니다) 카오야를 먹지 못하는 아쉬움을 카오야 또띠아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양꼬치도 먹어본 집 중 여기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츄러스 아이스크림도 팔았는데, 여러 번 사먹었습니다^^

**-전문대가 + 대책란가**

중국의 인사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리입니다. 전문대가에 들어서자마자 신기하게 생긴 버스를 볼 수 있었고, 동인당과 중국 최초의(?) 영화관도 있었습니다. 먹을 거리로는 진취덕 바로 옆 도일처라는 만두집이 있는데 삼선소맥과 양이 들어간 만두가 맜있습니다. 조금 가다보면 대책란가로 빠지는 골목이 있고, 맞은편에는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여유로울 때 예쁜 거리 사진도 찍고 맛집도 찾아다니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왕푸징**

베이징 번화가 중 하나로 신기한 음식을 파는 바로 그곳입니다. 먹자골목에는 실제로 전갈, 불가사리, 거미, 비둘기, 박쥐 등을 팔았는데 별로 먹음직스럽게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먹어 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전갈은 먹을 만 한데 불가사리는 나무맛이 났다고 합니다. 신기한 꼬치 말고도 양꼬치나 탕후루처럼 한국에서도 생각나는 맛있는 음식도 많았습니다^^~

두 개의 먹자골목 말고도 왕푸징에는 맛있는 것이 참 많았는데 베이징 카오야로 유명한 진취덕과 대동카오야가 둘 다 왕푸징에 있습니다. 진취덕의 경우 가족끼리 가면 좋은 분위기였고 대동은 연인끼리 가면 좋은 분위기입니다. 대동의 경우에는 카오야를 먹고 나서 디저트로 샤베트와 거봉도 주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중국에 있는 동안 제일 맛있었는 게 베이징 카오야였기에 살짝 부담가는 가격이긴 하지만 (다섯명이서 갔을 때 500元정도 나왔습니다) 한번쯤은 먹어보길 추천합니다. 카오야 말고도 진취덕 맞은 편에 구부리라는 유명한 포자집이 있고 동방신천지에도 지하에 맛있는 게 많았습니다.

먹는 것 말고도 거대백화점인 동방신천지, 두 개의 중국 서점, 거리 곳곳에 기념품으로 사가면 좋은 중국물건들을 파는 가게, 독특한 스카프와 목도리를 파는 포직도, 차를 사가기 좋은 상점들까지 볼 거리도 많습니다. 지하철 1호선 왕푸징역 A번 출구에서 나가면 바로 동방신천지 지하로 이어져 접근성도 좋습니다.

**-싼리툰**

친구들에게 ‘Bar street’라는 말을 듣고 갔는데 한국의 이태원과 비슷한 느낌으로, 베이징에서 밤에 문화를 즐기기에 가장 적절한 곳입니다. 택시로는 오도구에서 약 50~60元 정도에 갈 수 있습니다.

**-시단**

흔히 쇼핑천국으로 싼리툰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싼리툰의 경우에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꽤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주를 이룹니다. 쇼핑이 목적이라면 시단 방문을 추천합니다. 1호선을 이용해 시단역에서 내리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육교와 함께 약 열 개 정도의 백화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시단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몰인 조이시티는 10층 정도의 건물인데, 반은 상점 반은 식당가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륙의 에스컬레이터를 볼 수 있는데 1층에서 5층 식당가까지를 한번에 올라갑니다. 유명한 빵집인 85℃와 딘타이펑도 시단에 있습니다.

**-수수가**

베이징에 오면 만리장성을 오르고, 베이징 카오야를 먹고, 수수가에서 쇼핑을 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수가는 유명한 짝퉁시장 입니다. 흥정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필수적이기에 수수가에 오는 횟수가 늘수록 흥정 기술도 늘게 되었습니다ㅋㅋ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대략적인 시세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원하는 상품이 있다면 직접 발품을 팔아 시세를 알고 흥정하는 편이 가장 나았습니다. 저희는 생각보다 수수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에, 수수가에 갈 생각이 있다면 여유롭게 오는 편을 추천합니다.

**+베이징 생활 관련 추가정보**

- 저는 중국 물가가 한국에 비해 싸다고 들었지만, 베이징의 물가는 서울과 비슷합니다. 조각케이크와 요구르트의 경우 한국에 비해 저렴해 꽤 많이 사먹었습니다. 딘타이펑, 구부리, 도일처처럼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만두 한 접시가 50元일 정도로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 식비 지출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한끼에 20~150元 정도로 유동적입니다. 베이징에 맛있는 음식이 많아 먹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돈을 여유롭게 챙겨 오시는 게 좋습니다.

- 베이징 상점들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왕푸징에 11시쯤 갔는데 먹자골목조차 닫혀 있었습니다ㅠㅠㅠ

- 북경어언대의 공식 어학연수프로그램을 간 것이 아니라, 북경어언대의 기숙사를 이용하고 한국에서의 반 그대로 어언대에서 수업을 받았습니다. 타국 어학연수생들과의 교류가 조금 제한된 편입니다.

- 타국 어학연수생들과는 중국어가 아닌 영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영어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 기숙사의 경우 저희는 가장 좋은 17동을 썼고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편리하게 지냈습니다. 4동의 경우 시설부터…17동과 달랐고 기숙사 말고 방을 얻어 생활하는 어학연수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어느 기숙사든 통금은 없습니다.

- 한달 정도 체류하신다면 가이드북을 가져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현지에서 같이 오신 분의 가이드북을 오랜 기간 빌려..(이 자리를 빌어 감사합니다...ㅋㅋㅋ)봤는데 자유여행계획을 짜는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 페이스북과 유투브를 중국 정부에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싶으시면 VPN을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저에게 중국의 중심인 베이징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준 공자아카데미, 한국에서부터 중국 현지에서까지 저희를 챙겨주신 초동안^^ 현지선생님, 한국에서 중국어초보자인 저희에게 열정적으로 중국어를 가르쳐 주신 서가을선생님, 중국에서 중국어 뿐 아니라 중국 영화, 음식점까지 소개해 주시며 한달을 함께 한 중국선생님(죄송해요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요ㅠㅠㅠ), 그리고 한달동안 중국에서 좋은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간 분들께 감사합니다^^~